

이수그룹, 2006년 의약사업 진출

이수앱지스, 치료용 항체의약품 임상허가 ... 혈전생성방지용 치료제

이수그룹 바이오 관련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항체의약품 전문기업 이수앱지스(대표 최창훈)가 4월12일 치료용 항체의약품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허가를 받았다.

임상허가가 난 혈전생성방지용 치료항체 ISU301은 인체면역단백질을 직접 투여해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 GPIIb/IIIa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혈전생성을 막아 심근경색 방지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GPIIb/IIIa(Glycoprotein IIb/IIIa)는 GP2B3A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혈소판 표면에서 각종 혈액응고인자 결합을 유도해 혈전을 생성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한다.

2002년부터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동물세포 현탁배양기술을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도 선정돼 개발을 추진중이다.

치료용 항체의약품은 일반적인 화학합성 의약품과 달리 병원균이나 암세포 특정부위에만 작용해 선택성이 높고 인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활용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인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외에 일반 화학합성 약품에 비해 개발기간과 투자비가 적게 드는 특징이 있다.

또 최근 세계 제약시장에서도 화학합성 의약품 개발보다는 항체 등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어 관련 연구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수앱지스가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은 ISU301은 심장중재시술 환자에게 사용되는 혈전생성방지용 치료제로, 이수는 국내에서는 5만명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며 선진국형 식생활습관으로 인해 점차 심장관련 시술이 늘어나고 있어 수요가 매년 30%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수앱지스는 ISU301의 임상시험을 2005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수앱지스는 이수그룹이 연세의료원과 공동으로 2001년 설립한 바이오벤처기업 <페타젠>이 2004년 8월 이수화학 생명공학사업본부와 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치료용 항체 전문회사로 현재 각종 의료진단서비스와 항체관련 의약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매출액 7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14>